



# 환절기 모돈관리 강화 및 질병대책을 수립한다

## 1. 계절적인 번식문제

환절기가 시작되는 9월에는 환경 온도가 감소되기 시작한다.

9월에는 여름철 교배모돈의 재발의 증가 및 발정지연돈의 증가문제가 해결되는 시기로 9월의 교배두수는 대부분 농장에서 증가된다. 계절적 번식문제의 특징으로는 하절기 교배모돈의 분만율이 5~10% 저하되고, 가을철에는 계절적인 유산 및 재발모돈의 증가를 대부분 농장에서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대부분 계절적 번식문제의 판단 기준으로 분만율을 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번식성적이 양호한 돈군에서의 계절적 번식문제의 영향은 번식성적이 낮은 일 반농장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난다. 즉 양돈장에서 번식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할 경우 하절기 번식문제가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가을철의 재발과 유산문제와 연결되는 문제이므로, 번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한 가지씩 개선시켜 나갈 때 번식성적이 향상되고 계절에 의한 번식문제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 가. 모돈의 사료급여 관리

지 용 진 원장  
피그벳 동물병원

임신돈은 온도가 상승할 때보다 하강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료량의 증량 및 감량의 온도의 변화(돈사온도 기준)에 따라 한발 앞서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환경온도의 감소에 따른 모돈의 에너지 요구량 증가시 모돈의 사료급여량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초가을의 모돈의 번식문제인 재발돈 및 유산의 증가문제는 더 악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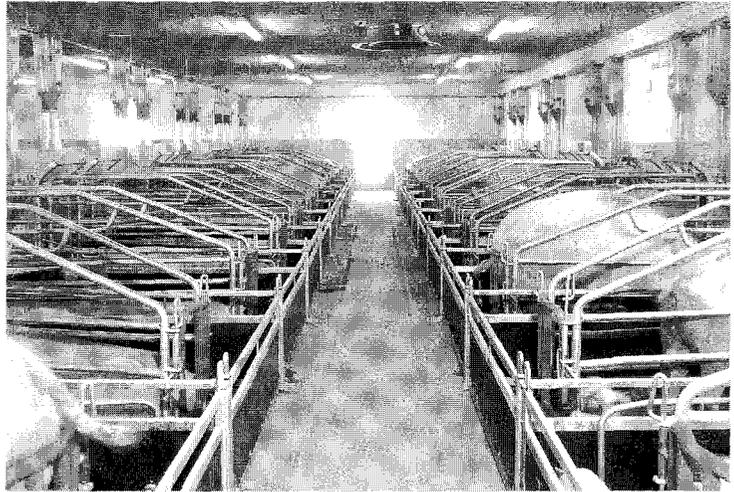
이러한 환경온도 감소로 인한 초가을 계절적인 번식 문제의 대책으로 9월에 모돈의 체평점을 평가하고, 임신돈의 사료량 증량을 10~11월에 환경온도의 변화보다 앞서서 실시한다. 환절기 돈사온도가 18°C이하에서 1°C 하락할 때마다 모돈 두당 1일 80g씩 추가 급여를 한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9~10월의 임신돈의 체평점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모돈의 사료급여량의 증량시기 및 증량수준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환절기 모돈사료 급여관리는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돈사환경에 따라서 관리의 차이는 있다.

환절기의 임신모돈 사료급여 관리는 추위

지는 초겨울의 사료증량과 환경 온도가 상승하는 이른 봄의 사료 감량 결정은 환경온도 변화에 따른 모돈의 체평점에 따른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나. 이유모돈 관리

다른 계절에 비하여 하절기에 이유된 모돈의 이유후 발정재귀일이 더 길며, 7일 이내 교배비율도 더 낮다. 또한 발정 강도에 있어서 미약발정을 보이는 모돈도 증가된다. 특히 초산돈이 이유시 발정재귀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사료급여량 증량급여로 가능하다. 즉 고에너지 고영양 사료를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산모돈은 이유 후에도 계속적으로 고에너지 사료를 급여한다. 또한 초산모돈에 한하여 이유시 또는 교배시에 호르몬 처치 방법도 번식성적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다. 재발돈의 증가

일반적으로 하절기에 교배된 모돈은 25일에서 35일 사이의 비정상적 주기의 재발이 10% 이상 관찰된다. 즉 비정상적 주기의 재발문제는 임신은 되었지만 착상되지 못한 경우도 판단할 수 있다.

비정상적 주기의 재발은 계절적 번식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즉 하절기 교배모돈의 저하와 번식성적의 저하로 분만 목표두수를 달성하기 어렵다.

또한 그 이후의 교배모돈의 증가로 차후의

분만복수가 증가되어 돼지의 흐름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리고 이 시기의 임신진단은 비정상적 주기의 재발이 증가하므로 다소 늦게까지 연장하여 임신 상태를 관찰한다.

## 2. 온도 및 환기 관리

### 가. 자돈사

환절기 자돈사 관리는 매우 어렵다. 이유자돈사에서 환절기 문제는 한낮과 새벽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야간에는 온도가 너무 내려가지 않고, 찬바람이 직접 자돈에게 접촉하지 않도록 윈치커튼 관리로 조절한다. 또한 한낮에는 일교차를 줄이기 위하여 창과 배기팬을 이용하여 충분히 환기시키고 온도 상승을 억제한다. 이유자돈사는 일교차가 5~10℃ 이상이 되면 부종병, 다발성 장막염, 복합호흡기 질병의 발생이 증가된다. 이러한 질병의 발생이 증가되면 자돈사의 온도, 환기 관리와 더불어 전략적인 항생제 투약을 실시한다.

환경온도 감소로 인한 초가를 계절적인 번식 문제의 대책으로 9월에 모돈의 체평점을 평가하고, 임신돈의 사료량 중량을 10~11월에 환경온도의 변화보다 앞서서 실시한다. 환절기 돈사온도가 18℃이하에서 1℃ 하락할 때마다 모돈 두당 1일 80g씩 추가 급여를 한다. 따라서 농장에서는 9~10월의 임신돈의 체평점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모돈의 사료급여량의 종량시기 및 증량수준을 결정한다.

## 2. 육성사

환절기 온도의 변화가 심한 농장일수록 밖의 온도 감소시의 원치관리를 강화하고, 한낮의 온도 상승시에 대한 대책도 상황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육성사도 자돈사와 같이 환절기 온도변화에 따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 즉 호흡기와 소화기 질병 문제가 증가되므로 환절기 관리강화와 효과적인 투약을 실시한다.

## 3. 환절기 항생제의 전략적인 투약 방법

환경온도의 변화의 편차가 크면 농장에서 자주 발병하는 농장의 상재성 질병에 대한 대책으로 항생제의 전략적인 투약을 실시한다. 농장 상황에 따라서 질병에 대한 대책비용, 약품의 선택, 약품의 사용량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표 1>과 같은 전략적 투약도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농장에서 호흡기 질병이나 새로운 돈사로

질병전파가 예상되는 시기에 전략적 투약방법을 사용하면 질병억제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증체 및 육성율이 향상된다.

환절기에 사육환경 개선과 사양관리 강화로 질병을 억제시킬 수 있지만 문제가 되는 농장은 전략적 투약방법을 이용하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양돈**

<표 1> 전략적 투약의 항생제 이용방법

질 병	항생제 이용 및 사용농도
유행성 폐렴	옥시테트라 사이클린 600g/톤 티아무틴 150g/톤 타이로신 100g/톤
위축성 비염	옥시테트라 사이클린 주사치료 아목사실린 주사치료
음	분만전 모돈에 이보맥틴 등 구제제 사용 포스멧 등 도포제 이용
삼출성 표피염	이유후 자돈에 클로로테트라 사이클린 600g/톤
마이코프라스마 관절염	티아무틴 주사치료 린코신 주사치료 타이로신 주사치료
스트렙토코커스뇌막염	이유자돈 전입시 페니실린으로 음수투약(14~21일)
신우신염, 방광염	후보돈 교배전 클로로테트라 사이클린 400g/톤
돈 적 리	돼지전입시 라니다졸 60g/톤(7일)